

제 123호 응급 사례 2: 여교수의 사례-I

이번에는 딸의 자살을 계기로 가족치료를 받은 어느 여교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문제의 초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호에는 치유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J교수는 사십대 후반으로 대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맏이인 딸과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J교수는 딸이 왜 자살을 했는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치료자에게 온 가장 큰 이유도 딸이 왜 어머니에게 그런 상처를 주며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J교수는 누구에게 내세워도 남부럽지 않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그 동안 오직 딸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노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갖춘 "모든 조건"이란 일류 중고교, 명문대 출신, 미국 박사 학위, 재산, 유능한 남편, 다재다능한 자랑스런 아들, 그리고 얼마 전에 맡게 된 학회장 자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J교수의 삶에 딸만은 어릴 때부터 "미운 오리 새끼"처럼 J교수의 완벽함에 흠만 내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J교수는 처음엔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했을 꺼냈지만 차차 억제하고 있던 "딸이 완벽했던 내 인생을 망쳤다!"는 분노와 절망감을 표현했고, 그리고 마음속 더 깊이에는 어머니로서 실패했다는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여태껏 쌓아온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고 절규했습니다. 이제 J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J교수는 시험에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공부와 출세의 외길을 달려 왔다고 합니다. 미국 유학에 앞서 부랴부랴 선배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혼자 미국으로 간 뒤에 방학 때 잠시 남편을 만나러 왔다가 첫 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뜻밖의 임신 소식은 전혀 기쁨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일정표대로 착착 진행되던 학위 계획에 "방해"일 뿐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J교수가 학위를 받는 동안 갓난 아기였던 딸은 한국으로 보내지고 외가와 친척집에 번갈아 맡겨지는 불안정한 유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J교수가 공항에서 만난 첫딸은 엄마를 반기기보다 할머니 눈치만 보며 엄마를 피했다고 합니다. 귀국할 때는 딸에게 그동안 못한 어머니 노릇을 잘 하리라 다짐했지만 막상 한국에 오자 곧 대학에 출강하게 되면서 딸과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딸 또한 엄마를 별로 찾지 않는 것 같아 말없이 잘 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 30대 중반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마침 출산이 방학 때라서 이번에는 실수없이 잘 키워보리라 하면서 가능한 모유도 먹이고 둘째에게 정성을 다 했더니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애가 그 때부터 두드러지게 말썽을 피운 것 같다고 합니다. 하는 짓이 모두 예쁘기만 한 늦둥이 아들과는 대조적으로 딸애는 미운 짓만 골라 하고 일부러 엄

마를 꿀탕 먹이고 남 앞에서 난처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J교수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보아왔던 문제를 딸아이의 처지에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일중독자처럼 일에 몰두하고, 엄마는 학교 일로 늘 바빴고, 할머니들은 이제 엄마가 돌아왔으니~ 하면서 손녀를 돌봐 주지 않았고, 완벽주의 엄마의 등살에 파출부들은 채 정이 들기도 전에 몇 번씩 바뀌는 등 딸에게는 안정된 밀착감을 형성할 유년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동생이 태어나자 딸은 마음 붙일 곳이 더욱 없어지게 되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우울증과 자폐증에 가까울 정도로 조용한 외톨이로 고등학교를 보내고 부모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대학에 들어가자 더욱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감, 무력감,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을 택하게 되었음을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J교수는 마음 속으로 "재는 왜 태어나서 내 속을 썩이는가?"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아마 딸의 처지에서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하는 자기 부정의 스크립트가 암암리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딸의 자살은 J교수가 임신 때부터 마음 속에 가졌던 딸에 대한 거부감에 마지막 확인표를 찍은 채 J교수의 당당하던 완벽주의를 무참하게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호에는 딸의 죽음을 계기로 어떻게 J교수가 완벽주의를 극복하고 상실감과 애도(grievance)의 상처를 치유하는지에 대해 계속하겠습니다.

최성애

© 조벽, 2001